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키움증권이 제24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접수는 2019년 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대회기간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다. 참가대상은 대학(원)생, 휴학생이다.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익률 1위·2위·3위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200만원·100만원과 인턴십, 해외탐방, 상장이 주어지며, 4위에서 10위 수상자는 아시아 금융 시장 해외탐방과 상장이 주어진다. 11월부터 100위까지는 상장 및 경품이 지급된다. /손영지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 5.5% ELS 4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22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1071회'를 총 4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 (6·12개월), 85% (18·24개월), 80% (30·36개월) 이상이면 연 5.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설정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6개월간 최초기준가의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5.5%의 수익 지급 후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 이벤트

대신증권은 20일 대신증권과 크레온을 이용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주식 더 달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총 5000달러 상당의 해외주식 패키지를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라리, 스타벅스 등 미국증시에 상장된 우량주식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벤트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 건설사 '주택한파'... 해외 수주로 위기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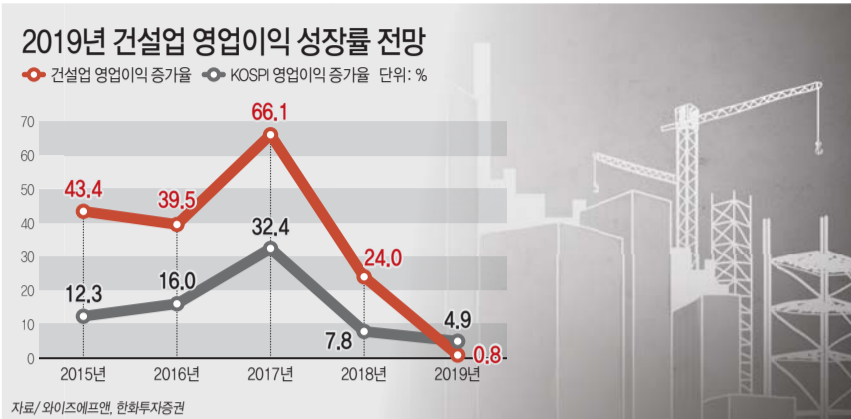
2019 건설업계 기상도

내년 영업익 성장률 0.8%p 그쳐  
주택분양 감소... 매출감소 전망  
올해 해외 수주액, 예상보다 38% ↑  
"매출 보다 '마진'에 주목해야"

건설사들이 올 한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견고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2019년에는 실적을 받쳐주던 주택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영업이익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 한해 가뭄이었던 해외수주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주 등의 영향으로 38%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사업 '흐림' 해외수주 '맑음'

20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송유립 연구원의 '2019년 연간 전망- 건설, 갈리는 실적 속 살아나는 모멘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건설업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0.8%에 그칠 전망이다. 코스피(KOSPI) 상승률이 4.9%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실적을 뒷받침한 '주택 부문'에 한파가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 연구원은 "분양 물량이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내년부터 건설사의 주택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며 "아울러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 정비사업 물량 증가 등으로 마진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요 5대 건설사(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림산업) 중에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내년도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건설사는 주택 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대림산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 3개 현장이 내년 중 준공 예정으로 주택 부문의 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보는 해외에서 들려올 전망이다. 2019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약 450억달러로 올해 예상 수주액(320억달러) 대비 약 38%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주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2018~19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880억달러, 5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80% 증가한 수치다.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알제리 HMD(Hassi Messaoud) 정유시설(약 25억달러), UAE 가솔린 & 아로마틱스(Gasoline & Aromatics·약 25억달러), 사우디 마르잔 필드 개발(Marjan Field Development·18개 패키지, 총 70억 달러 예산) 등이다.

송 연구원은 "해외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매출보다 마진"이라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직까지 저마진 해외 현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해외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석했다.

◆ GS건설, 올해는 장밋빛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설사별 실적 기상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주요 6개 건설사의 합산 예상 매출액은 60조5000억원으로 올해(61조3000억원) 대비 1.3% 가량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조2000억원으로 올해(4조원)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로 예상됐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전년대비 59.6% ↑)과 현대건설(22.5% ↑)로 꼽혔다. 반면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독보적인 해외 수주 성과를 나타내며 수주잔고를 올렸다. 내년 상반기에 이 수주분에 대한 기성이 본격적으로 올라와 향후 1~2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현대건설도 주택 부문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부문에서도 저마진 현장 준공에 따른 원가율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올 한해 장밋빛 실적을 기록한 GS건설은 내년에 분위기가 조금 처질 전망이다.

GS건설의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9%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해외부문의 환입효과를 제거하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 부문에서의 마진 개선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올해 매출 기여가 컸던 UAE RRW 현장이 준공되는 영향이다.

대우건설은 주택 분양 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문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림산업은 수주잔고 부족으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7만가구 집들이

국토부, 전국 5.1% 증가 13만 가구  
수도권 13% 늘고 지방 2.5% 감소

12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에서 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12만5000가구) 대비 5.1% 증가한 13만1807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9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6만2115가구가 완공된다. 수도권은 내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510가구)를 비롯해 경기 안성시 당왕동(1657가구) 등 2만5931가구가 입주한다. 2019년 1월에는 평택동삭(2324가구), 남양주다산(2277가구) 등 1만9347가구, 2월 화성동탄2(2559가구), 의왕백운(2480가구) 등 2만4414가구가

집들이 한다. 지방은 오는 12월 김해율하2(2391가구), 포항초곡(2162가구) 등 2만4221가구, 2019년 1월 강원원주(2133가구), 울산언양(1715가구) 등 2만2156가구, 2월 전주덕진(2299가구), 부산동래(1544가구) 등 1만5738가구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141가구, 60~85㎡ 9만508가구, 85㎡ 초과 1만115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5%를 차지한다. /채신화 기자

## 인천 '분양 호황'... 연내 5400가구 붓물

인천에서 연내 5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반면, 인천 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인천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모두 6곳(임대, 오피스텔 제외)으로 총 5844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44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분양했던 7곳 6694가구까지 합치면 4분기 인천 분양물량은 총 1만2135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분양 물량(4293가구)의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 10월 첫 분양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아파트들이 예상보다 높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조감도. /우미건설

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며 "남북관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무엇보다 9.13대책에 따른 비(非)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역 분양 단지 모두 15곳 중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한 단지

4분기 물량 1만2천가구 달해  
3분기 누적 물량의 3배 수준

는 5곳에 불과했다. 순위 내 미달 된 단지도 6곳이나 나왔다. 하지만 9월 이후 분양한 7개 단지 중 5곳은 1순위에서 전 가구 마감됐고, 나머지도 2순위에서 끝났다. 특히 인천 1순위 평균 24.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당첨자 중에는 청약 최고 가점인 84점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부분 건설사가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미추홀구 주안동 228-9 일대 전(前) 주안초등학교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동원개발도 이달 인천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알듀크'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12월 검단신도시 AB15-1Q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인다. /채신화 기자

## 롯데건설 가사노동 효율성 높이는 '퍼펙트 유틸리티' 개발

롯데건설이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퍼펙트 유틸리티'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퍼펙트 유틸리티는 가사노동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다용도실이라는 뜻으로, 조리 이외의 모든 가사노동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세탁물의 수집에서 손빨래, 세탁, 건조 및 다림질 후 분류까지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수거도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세탁 공간은 조리 및 수납공간에 밀려 협소해지는 추세다. 이 가운데 세탁 작업을 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퍼펙트 유틸리티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롯데건설 측은 예상했다.

퍼펙트 유틸리티는 ▲손빨래 및 분리수거 공간 ▲세탁기와 건조기의 설치 공간 ▲건조 후 처리를 위한 다림질 및 수납공간 ▲다양한 물품수납이 가능한 공간 등 4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세탁물의 보관, 손빨래, 물품수납, 다림질, 건조, 분류작업 등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셈이다.

이 공간은 출입구 2개를 만들어 세대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뤄져 있다.

/채신화 기자